"해영아 고맙다. 사랑한다"

LG 마해영에 띄우는 서정환 감독의 '러브레터(?)'

KIA 서정환 감독은 지난 21일, 22일 잠실 LG전을 싹쓸이 한 뒤 2연승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 "해영이에게 고맙다, 또 사랑스럽다" 라는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서 감독이 LG 주포인 마해영에게 갑자기 '고맙다' 는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다.

마해영은 지난 2004년 24억 FA 대박을 터트리며 KIA에서 2년간 뛰었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먹튀' 라는 오명을 쓰고 지난해 11월 LG로 트레이드 됐다.

당시 팀 성적에 보탬이 되지 못한게 미안했던 걸까? 21일 마해영은 친정 KIA와 시즌 첫 대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묵은 빚(?)을 갚았다.

지난 21일 KIA-LG전.

7회 LG가 1-0으로 앞선 1사 만루에서 LG 4번 마해영은 3루수 앞 병살타를 날려 팀의 대량 득점 찬스를 날렸고, 위기를 넘긴 KIA는 9회에 4득점, 4-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22일 2차전에서도 마해영은 또 다시 KIA 도우미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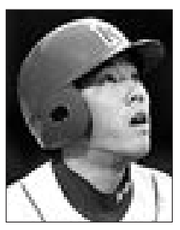
2회초 KIA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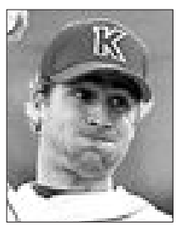
손지환의 2루타로 무사 2루에서 김경언이 1루 땅볼을 때렸다. 이때 2루주자 손지환이 3루로 진루하려 하자 마해영은 3루로 공을 뿌렸지만 터무니 없는 악송구. 손지환이 홈을 밟고 김경언은 2루까지 내달리며 승기는 KIA로 돌아섰다. 서 감독의 입에서 '해영아 사랑한다' 란 말이 나올 법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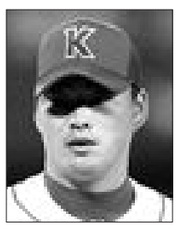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의 홈페이지 호사방 (자유게시판)에도 이례적으로 마해영을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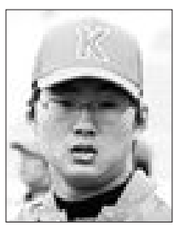
KIA "내친김에 1위 간다"

■금주의 프로야구


이용규


그레이


김진우


한기주

"내친김에 1위까지 간다"

4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2위로 올라선 KIA 타이거즈가 4월의 마지막 주(25~30일), 올 시즌 2강으로 꼽히는 SK와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1위 탈환을 노린다.

KIA는 올 시즌 초반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김진우-그레이-강철민-한기주로 이어지는 선발 마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주 4연승을 몰아치며 단독 2위로 올라선 상태.

특히 시즌 초반 2패로 다소 부진했던 '황금팔' 한기주가 지난 22일 LG전에서 첫 승을 거둔 뒤 자신감을 회복한 게 큰 힘이다.

여기에 지난해 최대 약점이었던 불안한 불펜도 정원과 전병두가 셋업맨으로, 장문석이 마무리로 든든히 버티고 있어 안정적이다.

다만 타율부문 1위에 오른 이용규(0.444)를 제외한 이종범(0.205)과 서브넥(0.244), 손지환(0.226), 심재학(0.182) 등 중심타선의 침묵하고 있는데다 4번 타자로 낙점됐던 홍세완마저 병상에 있는 게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용규 맹타 4연승…단독 2위
1위 SK·3위 삼성 불러 6연전

KIA와 주중(25~27일)에 맞붙는 선두 SK도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한다.

SK는 팀 타율이 0.279로 가장 높고 안타수(114)와 홈런수도 (11개) 1위다. 특히 국내 무대 첫 일본인 내야수인 시오타니는 타율 0.327으로 홈런 공동 2위(3개), 타점 1위(18타점), 최다 안타 2위(17개)로 경계대상 1호다.

SK의 벽을 넘으면 삼성과의 주말 3연전(28~30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KIA에 유독 강한 면을 보이며 천적 노릇을 해왔던 팀으로 마운드의 'KO 펀치' 권오준과 오승환이 여전히 위력적이다.

한편 25일 KIA-SK전은 그레이 싱어와 신승현이 각각 선발 출격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케냐 리모, 런던마라톤 우승

케냐의 펠릭스 리모(26)가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인 런던마라톤에서 2시간6분대 기록으로 우승했다.

리모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시내 코스에서 열린 남자부 풀코스(42.195㎞) 레이스에서 2시간6분39초에 골인해 마틴 렐(케냐·2시간6분41초)을 불과 2초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세계기록(2시간4분55초)에 도전해 관심을 모았던 '트랙의 신화'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에티오피아)는 2시간9분5초의 저조한 기록으로 9위에 그쳤다.

여자부에서는 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디나 캐스터(미국)가 2시간19분36초에 결승선을 끊어 올 시즌 여자부 최고기록으로 우승했다.

韓, 亞태권도 17회 연속 우승

한국이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7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3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7회 대회 마지막 날 남자 헤비급의 남윤배(한국체대)와 여자 라이트급의 진채린(리라컴퓨터고)이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고 선수단이 24일 알려왔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총 16개 체급 중 12개 체급에 참가해 8개의 금메달(남·여 각 4개)을 휩쓸어 17회 연속 종합우승 목표를 달성했다.

2005 하계유니버시아드 우승자인 중량급 기대주 남윤배는 결승에서 압둘카데르 알라드하미(카타르)를 6-1로 꺾었고 진채린은 수 리웬(대만)에 7-4로 승리, 정상에 올랐다.

기대를 모았던 황경선(한국체대)은 여자부 웰터급 결승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해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고, 같은 체급 남자부의 최성호(삼성에스원)도 쿠로쉬 라졸리(이란)에 7-8로 패해 금메달을 넘겨줬다.

"이승엽, 리듬을 타라"

준조 타격코치와 '슬럼프 탈출' 특별훈련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후 처음으로 부진한 한 주를 보낸 이승엽(30)이 히로시마 도요 카프, 주니치 드래곤스를 상대로 슬럼프 탈출을 노린다.

이승엽은 25일부터 사흘간 히로시마 구장에서 카프와 방문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는 도쿄돔에서 주니치와 홈 3연전을 벌인다.

2주 전 주말부터 좌완투수를 잇달아 5명을 상대하며 타격 자세가 무너진 이승엽이 시즌 초반 보여준 쾌조의 타격감을 되살려 유종의 미를 거두고 4월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엽은 지난주 야쿠르트, 한신과의 5경기에서 21타수 2안타로 부진했다.

현재 이승엽은 우치다 준조 타격 코치와 함께 타석에서 리듬감을 탈 수 있도록 특별훈련 중이나 워낙 페이스가 안 좋아 좌완은 물론 우완 투수가 나오더라도 안타를 장담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히로시마는 주중 3연전에서 숀 더글라스와 에이스 구로다 히로키를 각각 1,3차전에 내보낼 것으로 점쳐진다. 둘째날은 유동적이다. 두 투수가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우완인 만큼 이승엽이 안타행진을 재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주니치와의 3연전도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다. 가와카미 겐신, 마르티네스 등 주축 선발이 모두 주중 야쿠르트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 주말 3연전 마지막 날 등판하는 리그 탈삼진 1위(31개), 방어율 3위(1.13) 투수인 가와카미만 경계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축구장의 '타이타닉'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의 조나단데 구즈만이 24일 열린 2006 플레이오프 매치 경기도중 아약스의 클라스 얀 훈텔라르텔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다. /AFP=연합뉴스

동신고, 장원배 전국 정구대회 3연패

동신고(교장 임화인)가 장원배 제11회 전국남녀중고교정구대회에서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했다.

동신고는 25일 동신고 정구장에서 열린 남자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자연과학고를 3-1로 꺾고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세웠다. 동신고는 준결승에서 경기 안성고를 3-2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이날 김동훈(3년)과 황주연(3년), 김선근(3년), 박상민(3년)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우승했다.

동신고는 지난 3월 21~26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27회 회장기전국정구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라 전국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침표 찍자" "이제부터"

삼성 '싹쓸이'-모비스 '총반격'
프로농구 오늘 '숙명의 4차전'

25일 열릴 서울 삼성과 울산 모비스의 2005~2006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4차전은 삼성의 '싹쓸이'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은 프로농구 출범 이후 10번째 챔프전인데 그간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일궈낸 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 게다가 한 팀이 1차전부터 3차전까지를 내리 이긴 적도 없었다. 그만큼 삼성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제는 승부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삼성 안준호 감독의 자신감도 극에 달해 있다.

반면 모비스는 막막한 상황이다. 3차전까지 세 경기를 모두 좋은 내용을 보이고도 져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극심한 지경이다. 유재학 모비스 감독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떨어지는데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서 맞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삼성의 우승 잔칫날이 될 것인지, 모비스가 반격의 발판을 놓을 것인지 25일 오후 6시 10분 잠실로 농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lucky@

스포츠 중계

25일(화)

▲메이저리그〈플로리다-시카고C〉(07 : 55·Xports), 〈애리조나-샌디에이고〉(10 : 55·Xports)

▲제40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 남고부 준결승(14 : 00·KBS SKY SPORTS)

▲프로농구 챔피언결정 4차전〈서울삼성-울산모비스〉(18 : 00·KBS2)

▲프로야구〈롯데-두산〉(18 : 00·KBS SKY SPORTS), 〈KIA-SK〉(18 : 00·SBS 스포츠), 〈삼성-LG〉(18 : 30·MBC ESPN)

26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아스날-비야레알〉(03 : 30·MBC ESPN), (03 : 35·MBC)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 가라!!
설운도
4월 27, 28일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다우공인중개사
☎(代)523-8114 핸 011-603-1308
(용봉동 아이파크 사거리 코너)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유흥주점 가능
·12m 도로접
·건축허가득(1층 위락시설 및 단란주점)
·120평×350만

용봉지구 근린상업지역
·12m×8m코너접
·120평×400만

장등동 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득, 남향
·전원주택, 식당, 창고가능
·개발부담금 없음
·복개도로접, 대형차량 진입가능
·10m 도로계획선에 접함
·430평×65만

성공시대부동산
☎(代)371-4449 (핸) 010-8289-8549
(상무지구 시청앞 랜드피아 사거리)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130평 평당 580만원
•195평 평당 760만원
•150평 평당 1400만원
•220평 평당 1350만원
※상무지구 상업지역 상담 환영

수완지구 신설 30m 도로접
•700평 평당 230만원
•220평 평당 250만원
(주유소, 대형마트, 병원, 교회 적합)

운수동 매일유업 사거리
•810평 평당 145만
(고물상, 공업사 적합)
※국유지 150평 추가매입 가능

주유소 특급부지 급매
•365평 평당 235만원
※정유사 7년근무 영업사원 보장…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북구 우산A 문흥초등학교 정문앞)

토지매매
·청옥동 동사무소건너편 자연취락지역 1종 주거 160평, 398평(전원주택지, 식당적합) 매매가 평당60만원
·담양군 담양읍 남도대학부근 관리지역 대로변 423평 전원주택, 가든 적합 매매가 평당35만원
·광산구 옥동(평동)소재지 대로변접 대지180평(식당, 상가 적합) 평당 매매가 190만원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2차선도로접 답1,062평 당2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2차선 국도접 관리지역 약2070평 매매가 평당 10만원
·광산구 쌍암동 중심상업지역 92.3평 평당 매매가 350만원
·서구 벽진동 자연녹지 13,600평 평당40만원
·남구 양림동 재개발지역 아파트 약 2000세대 주변 약120평(상가적합) 평당 550만원
·북구 문흥동 우산주공앞(전대후문부근) 나대지 110평(원룸부지, 고시원 적합) 매매가 평당 200만원

임야매매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산24,900평 당4,000원

건물매매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앞 대지 약58평 건평149평(지하1층 지상4층) 세보증금 1억1000만원 월240만원 매매가 5억2000만원
·북구 문흥동 상업지역 대지120평 건평542평(지하1층 지상6층) 세보증금 2억1500만원 월900만 매매가14억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내 대지 160평 건평670평(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2억8000만원 월1900만원 융자10억포함 매매가 23억5000만원
·북구 일곡동 대지 145평 건평 450평(지상5층) 세보증금 1억8600만원에 월 1400만원 융자 7억 5,000만원 포함 매매가 16억
·북구 용봉동 25m 대로변 대지103평 건평175평 3층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세보증금 2억200만원에 월615만원 매매가 9억5000만원
·북구 중흥동(북구청앞) 대지112평 건평317평(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3억3000만원 월900만원 매매가 13억5000만원(융자3억1500만)

고시원 매매
·용봉동 전대후문부근 대지50평 건평100평(3층신축) 최고급시설, 월수입 780만원 매매가 4억6000만원

주유소 및 주유소 부지매매
·북구 오치동 대지445평 건평210평 현재성업중 주유소·주유기 9대 세차기동 매매가 16억

원룸 매매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부근 대지 60.5평 건평112평 3층 보증금 2000만원에 월363만원 매매가 3억7000만원
·동구 산수동 대지 103평 건평160평(3층 신축) 세보증금 1억3900만원에 월200만원 3층 주인거주 매매가 4억7000만원(융자2억포함)
·원룸주택, 고시원, 건물, APT, 토지 다량보유 상담환영 물건 접수 바랍니다.